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지각이 수용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activity Perception of Art Archive Platform Users on Acceptance and the Intention

김혜정*, 박종우**

승실대학교 대학원*, 승실대학교 경영학부**

Hye-Jung Kim(khj06@ssu.ac.kr)*, Jong-Woo Park(jongpark7@ssu.ac.kr)**

요약

현대 예술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작품은 시대의 사회 환경과 기록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 구성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대의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과제이며, 기록 보존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 현재,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료 저장의 용도 외,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예술 문화기록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트 아카이브 관련 실증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을 세분화하여,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결과, 이용자는 자신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호작용성의 지각을 통해 이용의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을 정보 기술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매체의 특성을 적용한 상호작용성을 보다 구체화 하여 이용의도를 실증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중심어 : | 아카이브 | 아트 아카이브 | 상호작용성 | 기술수용모델(TAM) |

Abstract

Art in the modern sense takes the lead to reform the society through constant interaction with members in society. Therefore the works of Art should be understood as social compositions that are reconstructed creatively according to the social environmental impact. Recording,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 references are compulsory for the constant social reform, so the importance of Archive is stressed. However, the Art Archive in Korea is operating very limitedly just to provide simple references to the users. Thus, We need to seek for various ways and user-focused service to utilize the digitalized Art culture records, and need positive research on Art Archive to enhance the creative activities. So in this study, we subdivided the interactivity and applied TAM model. Our analysis on the effect on the purpose of use shows that the users need to be provided with useful informations easily for their creative activities. It also shows that the purpose of use increases through awareness of interactivity.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a limit of the sample so further studies for the purpose is suggested.

■ keyword : | Archive | Art Archive | Interactivity |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

I. 서론

진정한 사회변혁은 정치와 같은 구조의 변혁이 아니라 일상생활, 언어, 공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행위가 발휘될 때 일어난다[1].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예술은 사회(community)속에서 사회구성원(member of society)과 지속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사회변혁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은 사회와의 통합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개인의 경험을 사회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는 실천 행위이므로, 사회 환경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고정화된 객체가 아니라 사회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해석과 태도를 설정하게 하는 비평이자 도전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은 기존의 사회 인식체계를 변화시키는 사회 변혁적 대상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작품(oeuvre)은 작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환경의 영향에 따라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 구성물(social construct)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구성물들은 넓은 의미로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고 여러 분야의 사회변혁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록, 수집 및 보존이 필요시 되며[2], 이를 위한아카이브(archiv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급변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과 매체의 발전은 다양한 종류의 아카이브를 통해 예술품을 디지털 객체로 변환하여 사회변혁에 동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술분야의 아트 아카이브는 누군가의 아카이브 자료들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다시 재구성하는 형태로 예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방식으로 구현되는 예술을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al)’라고 지칭하고 있다[3]. 아트 아카이브는 정보의 전달 이외에 시각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다양한 맥락을 생성하며,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확장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예술작품이라는 물리적 대상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예술작품을 문화 콘텐츠라는 형태로 재구성, 생산하는 예술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용자들의 지식정보차원에 대한 요구와 활용 행태에 대해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기능성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아트 아카이브는 기존의 예술기관의 한 부분으로서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행태에 그치거나, 단순 자료를 추적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록 관리 전반 체제의 기초가 “기록과 보존”보다는 “접근과 공유”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음을 직시하고, 디지털 화된 예술 문화기록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들을 모색[4]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트 아카이브는 작업의 과정 또는 일련의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지식의 재구성 및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술의 개념은 사회관계 속에서 창작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급속도로 진화되고 있는 매체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ICT)을 활용한 아카이브의 환경변화는 예술양식과 개념형성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용자중심의 플랫폼(platform) 방식[5]으로 이용자가 매체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새로운 아트 아카이브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분야의 매체에 대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연구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지각적 상황변수 역할보다는 대부분 마케팅 측면에서 소비자의 몰입과 만족에 대한 선행변수 연구들이었다[6-8].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매체인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서비스 수용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의 상호작용성

1 아카이브(Archive)의 어원적 개념은 희랍어인 아르케온(Archein)에서 유래되었으며, 보다 직접적인 의미가 전달된 것은 라틴어 아르키부름(Archivum)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김유경,2000)을 의미한다.

최근 ICT를 기반으로 두는 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상호작용성은 기존 매체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11],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같은 존재물(entities)들과 행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12]. 즉, 상호작용성은 적어도 두 개의 개체 또는 두 개의 행동에 의한 상호적인 사건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일어난다고 정의할 수 있다[13][14]. 하지만 상호작용성의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복잡성[15]을 내포하고 있으며, 연구관점 및 구성요인도 대상매체 특성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16-18][65].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 연구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19]. 첫 번째 관점은 사람과 매체와의 상호작용(mechanical perspective) 측면으로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매체의 정보전달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20]. 두 번째 관점은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interpersonal perspective) 측면으로 상호 간에 주고 받는 정보들이 얼마나 연관이 있으며, 주관적으로 적절함을 평가한다[17][21][22]. 마지막 관점은 상호작용성의 과정을 분석하거나 특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이용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성을 지각하고 경험하는가를 강조하는 관점이다[19][23]. 즉, 이러한 관점은 상호작용성 개념을 이용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용자 중심으로 상호작용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상호작용성의 다양한 구성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상호작용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통제성(user-control), 반응성(responsiveness), 연결성(connectedness)을 제시하고 있다[8][15][17][24-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Wu(2000)[17]와 Dholakia 외(2000)[25] 등의 연구자들이 분류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한 통제성, 반응성, 연결성을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의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요인			기타요인
	통제성	반응성	연결성	
williams et al.(1988)	◎			역할교환
Alba et al.(1997)		◎		
Lieb(1998)			◎	개인화
Shih(1998)	◎			속도
Heeter(2000)		◎		복잡성, 이용감시
Wu(2000)	◎	◎	◎	
Downes & Mcmillan(2000)	◎	◎		지각된 목표
Dholakia et al.(2000)	◎	◎	◎	실시간 상호작용
Liu and Shrum(2002)	◎	○		
이태민(2003)	◎	◎	◎	접속성, 개인화
Sohn and Lee(2005)	◎	◎		효능감
탁진영, 박원달(2005)	◎	◎	◎	개인화

◎ 동일요인 ○ 유사요인
출처 : 구자철 외(2009)[30]의 연구자료 재구성

첫째, 통제성은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순서, 시간,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24][31-34].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은 이용자 중심의 자발적인 공유를 전제로 한 재구성적 창작활동임으로, 허용되는 ICT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본인의 통제 하에서 공유하고, 다양한 매체형태로 전달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어느 때라도 이용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7][17][25].

둘째, 반응성은 “이용자가 요구 또는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35][36].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창작물의 공유는 대부분의 경우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비동기적 공유행위를 하거나, 공유된 창작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재해석을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용자에게 시스템이나 공유된 창작물의 관련 문의사항 또는 내용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답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연결성은 “특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밖의 세계와 연결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25][35][37].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한다[38].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문화적 공동체와의 연결성은 창작 문화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39].

2.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AM :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정보기술의 수용 및 이용의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개념적 틀로 고려되어져 왔다[40]. TAM은 특정 정보기술에 대해 이용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s), 긍정 또는 부정에 의한 태도(attitudes), 이용의도(intention to use)와 실제 이용행위(actual use)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와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external factors)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시된 모델이다. TAM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태도를 통해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발전된 모형[41]이다.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이용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요인으로 태도를 제시하고, TRA에서 구체화하지 못했던 태도의 평가적 결정요인들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했다.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믿는 정도”로,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노력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로 정의했다[42]. 이러한 신념적(beliefs) 요인들은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43]과 혁신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이론의 혁신 채택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상대적 이점과 복잡성에 해당하는 구성개념들로 지각된 혁신의 특성들이다[44][45]. 초기의 TAM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둘 다 혁신적인 정보시스템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attitude)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TRA와 일치하였으나[46],

Davis & Bagozzi(1989)[40]의 TRA와 TAM의 변인을 이용한 정보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TAM이 TRA보다 정보기술의 수용연구에 더 적합한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TAM이 기존의 뉴미디어 이론들을 보다 발전된 모델로 뉴미디어의 수용예측을 위한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은 장점으로 인정되지만, 기술수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이론적 모델에 적용시키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정보기술 수용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추가 외부 요인들을 포함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E-TAM)이 제시되었다[47][48]. E-TAM은 지각된 유용성의 결정요인으로 이미지(imag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결과 입증가능성(result demonstrability), 결과 품질(output quality), 업무 관련성(job relevance)과 조절변인으로 자발성(voluntariness), 경험(experience)을 기존 TAM 모델에 추가시킴으로써 기술 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구체화시켰다. 하지만 E-TAM모델에 추가된 상황적 변인들은 혁신확산이론의 적합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정의만을 담고 있고,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만 추가되어 뉴미디어에 대한 정보기술 수용예측성은 높으나, 조직차원에서의 수용예측에는 큰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업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조직의 차원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Venkatesh 외(2003)[51]는 계획된 행동이론, 기술수용모델, 혁신확산이론, 인지행동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통합구성모델(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 UTAUT)을 제시하였다. UTAUT 모델은 그 동안 지적받아 온 조직적 차원에서의 정보기술수용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대한 결정요인들로 외부지원인식(perception of external control),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컴퓨터 자기 효능감(computer self-efficacy), 컴퓨터 유희성

(computer playfulness), 컴퓨터 불안(computer anxiety), 그리고 객관적인 용이성(objective usability)을 E-TAM에 추가하였다[52], 기존의 기술수용모델들과 차별화된 차이점은 경험의 조절 효과에 대한 강조이다. Venkatesh & Bala(2008)[52]는 “UTAUT의 이론적 핵심강점을 포괄성(The key strength of UTAUT is its comprehensiveness)”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보기술 수용 과정에서 타당한 관계에 따른 결정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결함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TAM에 대한 보완적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지속적 등장에 따라 그 변화에 맞춰 발전되어져 왔다[5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최근 뉴미디어로 부각되고 있는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의 수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TAM을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ICT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온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외부변수로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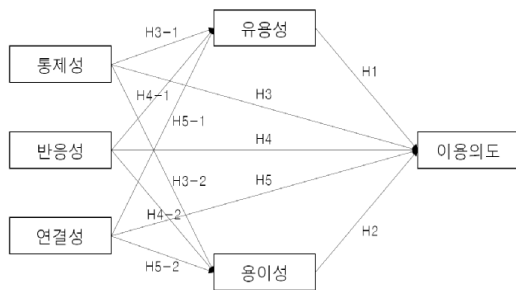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의 가설설정

2.1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
본 연구는 “이용하기 쉽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면 특정 정보기술에 대하여 이용의도가 높다”는 TAM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인과관계를 적용하였다 [40][55].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들이 자신의 창작활동에 유용한 창작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 H1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2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2 지각된 상호작용과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 그리고 이용의도 간의 관계

본 연구는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지각정도를 구체적인 외부변인으로 통제성, 반응성 그리고 연결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Liaw 외(2007)[56]는 정보제공자와 이용자를 비교하여 기술수용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면서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Lee 외(2006)[57]의 온라인 소매상 연구와 모바일 상거래[26]의 관련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의 구성변수가 TAM의 신념적 변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통제성(user control)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흐름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17][58]. Koufaris(2002)[59]는 IT에 기반을 두는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다소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각된 통제성(perceived control)과 같은 외생변수를 추가하여 기술 수용과 이용의도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과 같은 정보시스템 이용자들은 스스로 자기상황을 통제하면서, 자발적으로 창작정보를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통제성에 대한 지각은 플랫폼에 대한 유용성과 편의성 인지가 향상되고, 이용의도 또한 증가시킬 것이다.

H3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통제성 지각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3-1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통제성 지각은 유용성 인지를 향상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통제성 지각은 용이성 인지를 향상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반응성(responsiveness)은 품질경영의 서비스 품질 측정모형인 SERVQUAL에서 사용되는 반응성(responsiveness)과 비슷한 개념으로[60], 이용자가 자신의 문의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35][36]. 이응규와 이종기(2003)[61]의 서비스품질 연구에서 응답성은 유용성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속한 반응은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이성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6]. 또한 대학교육에서 교수 대응성은 학생의 만족 및 재수강 의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62].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은 비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유행위이므로, 이용자는 요구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하면서도 신속하게 응답해 준다면,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을 유용성이 있다고 인지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반응성 지각은 이용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H4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반응성 지각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4-1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반응성 지각은 유용성 인지를 향상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반응성 지각은 용이성 인지를 향상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연결성은 특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개인이 느끼는 정도이며, 네트워크 내의 다른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25].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상호작용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통제하면서 생산 및 재생산하여 다른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31]. Liao(2006)[7]는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이용자의 몰입경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커뮤니케이션에 연결된 이용자들이 공동체와 관련 있는 요인들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63]. 따라서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정보공유는 연결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지속되므로 이용자 간 자발적인 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공동체와의 연결성 지각은 자신의 창작 활동에 유용성과 용이성 인지를 향상시키므로 이용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H5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연결성 지각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5-1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연결성 지각은 유용성 인지를 향상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연결성 지각은 용이성 인지를 향상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의 유일성(exclusiveness)과 원본성(authentication) 등, 기계적으로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성격이 아닌, ICT 환경을 활용한 아카이브 플랫폼 운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9]에 맞추어, 이용자 중심의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을 직접 이용하면서 상호작용성을 지각하고, 자신의 창작행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창작자 중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20대 예술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설문(interview survey)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설정은 ICT 환경을 기반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아트 아카이브의 특성상 정보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보기술 수용에 가장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TAM에서의 상호작용성 연구들은 대부분 웹 기반 교육용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물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들의 인과관계가 아닌 단일개념인 지각된 상호작용성(perceived interactivity)으로 연구되어 왔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트 아카이브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구체적인 요인들로 구분하여, TAM 모델의 신념적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상충적 변인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TAM 모델의 결과변수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측정문항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측정문항

변수명	측정문항
지각된 통제성	① 원하는 작품의 감상이 편리함
	② 효율적 구성으로 이용의 결과가 예측 가능함
	③ 최신작품과 문화예술 분야의 많은 정보 검색이 쉬움
	④ 관심있는 작품과 관련된 첨부정보의 확인이 용이함
지각된 반응성	①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응답함
	②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문의사항에 적절하게 응답함
	③ 이용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항상 준비되어 있음
	④ 이용자에게 적절하면서 신속하게 반응함
지각된 연결성	① 다른 이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② 다른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한 접촉이 쉬움
	③ 다른 이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함
	④ 다른 이용자와 공동작품과 같은 창작활동이 가능함
지각된 유용성	①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함
	② 개인의 창작활동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함
	③ 개인의 창작성고를 높여준다고 생각함
	④ 문화예술 분야의 최신 정보에 빠르게 접근 가능함
지각된 용이성	① 이용이 익숙함
	②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음
	③ 이용과정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움
	④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는 것이 쉬움
이용의도	① 이용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이용하지 않을 것임
	②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편리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임
	③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
	④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것임

IV. 분석 결과

1. 자료수집 및 표본

본 연구의 설문은 2016년 4월 25일 ~ 4월 28일 간 면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술학과 2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총 224부를 배포하여 223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 223부 중 불성실한 응답 25부를 제외한 198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자가 특정한 예술학과 2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성별에 따른 분포는 여성응답자가 9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3.4%,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86.9%, 대학교 졸업 10.1%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는 창작자 즉,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여학생이 100%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합계(명)
성별	남성	4	2.0	198
	여성	194	98.0	
연령	20대	185	93.4	198
	30대	5	2.5	
	40대	6	3.0	
	50대 이상	2	1.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72	86.9	198
	대학교 졸업	20	10.1	
	대학원 졸업 이상	6	3.0	
직종	창작자	198	100.0	198

3.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 1.0,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적재치로 판단하였다.

[표 4]에서는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인 1은 지각된 반응성, 요인 2는 지각된 용이성, 요인 3은 지각된 통제성, 요인 4는 지각된 유용성, 요인 5는 지각된 연결성으로 전체의 76.598%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요인이 0.4 이상의 요인적재치를 보이

고 있다.

지각된 반응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이상의 고유값과 0.4이상의 공통성을 보였으며, 전체의 18.268%를 설명하고 있다.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통제성 또한 1이상의 고유값과 0.4이상의 공통성을 보였으며, 각각 전체의 17.860%, 15.32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유용성에 사용된 설문문항 중 1개 항목(④번 항목), 지각된 연결성에 사용된 설문문항 중 1개 항목(①번 항목)은 선행연구와 다르게 적재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각각 전체의 12.789%, 12.35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들은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되며,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분석 결과

설문문항	변수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지각된 반응성	②	.840	.006	.221	.193	.061
	③	.838	.010	.195	.151	.147
	④	.837	-.070	.196	.164	.087
	①	.795	.237	.191	-.019	.133
지각된 용이성	③	-.031	.848	.020	.036	.249
	①	-.077	.821	-.076	-.193	-.098
	④	.101	.761	.231	.163	.277
지각된 통제성	②	.126	.748	.198	.292	.072
	①	.154	.277	.843	.053	.000
	②	.331	-.040	.792	.062	.142
지각된 유용성	④	.340	-.014	.695	.123	.175
	③	.093	.128	.618	.329	.264
	②	.140	.138	.171	.908	.098
지각된 연결성	③	.172	-.149	.152	.753	.426
	①	.300	.540	.110	.652	-.076
	③	.069	.202	.047	.113	.894
고유값	④	.234	.073	.304	.116	.809
	②	.239	.386	.367	.302	.498
고유값	3.288	3.215	2.758	2.302	2.225	
분산(%)	18.268	17.860	15.323	12.789	12.359	
누적분산(%)	18.268	36.127	51.450	64.239	76.598	

다음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항목과 구성요소별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

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8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5.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문항수	사용된 문항수	Cronbach's Alpha
지각된 유용성	4	3	.814
지각된 용이성	4	4	.838
지각된 통제성	4	4	.821
지각된 반응성	4	4	.893
지각된 연결성	4	3	.818

4. 상관관계분석

중요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와 변수 간 관련성 등 개략적인 특성을 검토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계수가 0.2 이하이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이며, 0.2 ~ 0.4 이면 낮은 상관관계, 0.4 ~ 0.6 이면 높은 상관관계, 0.6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관관계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의 상관계수는 0.319로 $p < 0.01$ 수준에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통제성,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의 상관계수는 각각 0.438, 0.421, 0.486으로 $p < 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용이성에 대해서 지각된 통제성과의 상관계수는 0.258로 $p < 0.01$ 수준에서 낮은 상관관계가, 지각된 연결성과의 상관계수는 0.410으로 $p < 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반응성의 상관계수는 0.132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통제성에 대해서는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이 각각 0.535, 0.521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반응성과 지각된 연결성의 상관계수는 0.402로 $p < 0.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유용성	용이성	통제성	반응성	연결성
평균	3.817	3.129	3.838	3.216	3.434
표준편차	.714	.823	.626	.567	.698
유용성	1				
용이성	.319**	1			
통제성	.438**	.258**	1		
반응성	.421**	.132	.535**	1	
연결성	.486**	.410**	.521**	.402**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5. 연구가설 검증

5.1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

독립변수(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통제성,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이 종속변수(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의 변량을 62.0% 설명하고 있으며, 유용성이 높게 인지될수록 이용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11.053, p=0.000$). 모형 2는 모형 1에서 지각된 용이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이용의도의 변량을 69.9%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1에 비해 7.9% 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t=9.453, p=0.000$), 지각된 용이성($t=6.325, p=0.000$)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서 지각된 통제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이용의도의 변량에 대해 70.4%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에 비해 0.5% 더 설명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t=9.396, p=0.000$), 지각된 용이성($t=6.523, p=0.000$)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각된 통제성($t=-1.663, p=0.098$)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서 지각된 반응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이용의도의 변량에 대해 72.0%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3에 비해 1.6% 더 설명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t=8.505, p=0.000$), 지각된 용이성($t=6.846, p=0.000$), 지각된 통제성($t=-2.828, p=0.005$), 지각된 반응성($t=2.993, p=0.003$)은 모두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5는 모형 4에서 지각된 연결성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이용의도의 변량

에 대해 75.3%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4에 비해 3.3% 더 설명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t=7.532, p=0.000$), 지각된 용이성($t=5.561, p=0.000$), 지각된 통제성($t=-4.227, p=0.000$), 지각된 반응성($t=2.560, p=0.011$), 지각된 연결성($t=4.681, p=0.000$)은 모두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지각된 유용성($\beta=0.437$), 지각된 용이성($\beta=0.294$), 지각된 연결성($\beta=0.290$), 지각된 통제성($\beta=-0.262$), 지각된 반응성($\beta=0.150$) 순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ston은 2.354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표 7.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 결과

변수	이용의도				통계량			
	표준 오차	베타	t값	유의 확률	R	R ²	F	유의 확률
모형 1 (상수) 지각된 유용성	.134 .035		13.661 11.053	.000 .000	.620	.384	122.173	.000
모형 2 (상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133 .033 .029	.620 .511 .342	11.480 9.453 6.325	.000 .000 .000	.699	.489	93.245	.000
모형 3 (상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통제성	.159 .036 .029 .040	.548 .354 -.095	10.498 9.396 6.523 -1.663	.000 .000 .000 .098	.704	.496	63.647	.000
모형 4 (상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통제성 지각된 반응성	.164 .037 .029 .044 .048	.503 .365 -.176 .183	9.271 8.505 6.846 -2.828 2.993	.000 .000 .000 .005 .003	.720	.518	51.934	.000
모형 5 (상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통제성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	.156 .036 .028 .044 .046 .039	.437 .294 -.262 .150 .290	9.504 7.532 5.561 -4.227 2.560 4.681	.000 .000 .000 .000 .011 .000	.753	.568	50.433	.000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5.2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독립변수(지각된 통제성,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이 매개변수(지각된 유용성)를 통해 종속변수(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유용성 인지에 대해 지각된 통제성($t=3.879, p=0.037$), 지각된 반응성($t=2.895, p=0.004$), 지각된 연결성($t=4.501, p=0.000$)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이용의도에 대해 지각된 통제성($t=-2.167, p=0.031$), 지각된 반응성($t=3.099, p=0.002$), 지각된 연결성($t=7.811, p=0.000$)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대해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t=7.928, p=0.000$)으로 나타나 3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지각된 통제성과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 중 지각된 통제성의 3단계 β 값은 -0.242 로 2단계 β 값 -0.163 보다 크게 나왔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의 3단계 β 값은 각각 $0.117, 0.388$ 로 2단계 β 값인 $0.218, 0.544$ 보다 작게 나와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3단계에서 지각된 반응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t=1.871, p=0.063$) 지각된 유용성이 지각된 반응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지각된 연결성은 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t=6.097, p=0.000$) 지각된 유용성이 지각된 연결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서 31.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33.5%, 3단계에서는 49.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단계별 F값을

보았을 때, 회귀선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공차한계 값을 보았을 때, 모든 독립변수들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 효과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회귀분석 결과

검증 단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베타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통계량
1 단계	지각된 유용성	(상수)		3.879	.000		R=.559 R ² =.313 F=29.415 p=.000
		지각된 통제성	.161	2.104	.037	.602	
		지각된 반응성	.207	2.895	.004	.693	
		지각된 연결성	.319	4.501	.000	.708	
2 단계	이용 의도	(상수)		11.143	.000		R=.578 R ² =.335 F=32.523 p=.000
		지각된 통제성	-.163	-2.167	.031	.602	
		지각된 반응성	.218	3.099	.002	.693	
		지각된 연결성	.544	7.811	.000	.708	
3 단계	이용 의도	(상수)		10.201	.000		R=.706 R ² =.498 F=47.885 p=.000
		지각된 유용성	.488	7.928	.000	.687	
		지각된 반응성	.117	1.871	.063	.664	
		지각된 연결성	.388	6.097	.000	.641	

5.3 지각된 용이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독립변수(지각된 통제성, 지각된 반응성, 지각된 연결성)가 매개변수(지각된 용이성)를 통해 종속변수(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용이성 인지에 대해 지각된 연결성($t=5.044, p=0.000$)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통제성과 지각된 반응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이용의도에 대해 지각된 통제성($t=-2.167, p=0.031$), 지각된 반응성($t=3.099, p=0.002$), 지각된 연결성($t=7.811, p=0.000$)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이 이용의도에 대해 99% 신뢰수준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t=6.026, p=0.000$)으로 나타나 3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지각된 연결성의 3단계 β 값은 0.404로 2단계 β 값 0.544보다 낮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3단계에서 지각된 연결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t=5.933, p=0.000$)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연결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서 17.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33.5%, 3단계에서는 44.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단계별로 F값을 보았을 때, 회귀선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차한계 값을 보았을 때, 모든 독립변수들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용이성의 매개 효과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9]과 같다.

표 9. 지각된 용이성의 매개회귀분석 결과

검증 단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베타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통계량
1 단계	지각된 용이성	(상수)		3.772	.000		R=.418 R ² =.175 F=13.691 p=.000
		지각된통제성	.095	1.125	.262	.602	
		지각된반응성	-.075	-.962	.337	.693	
		지각된연결성	.391	5.044	.000	.708	
2 단계	이용의도	(상수)		11.413	.000		R=.578 R ² =.335 F=32.523 p=.000
		지각된통제성	-.163	-2.167	.031	.602	
		지각된반응성	.218	3.099	.002	.693	
		지각된연결성	.544	7.811	.000	.708	
3 단계	이용의도	(상수)		10.119	.000		R=.663 R ² =.440 F=37.912 p=.000
		지각된용이성	.357	6.026	.000	.825	
		지각된통제성	-.197	-2.833	.005	.599	
		지각된반응성	.245	3.777	.000	.690	
		지각된연결성	.404	5.933	.000	.626	

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수용과 이용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TAM 요인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이용의도에 대해 상호작용성의 구성 요인을 3가지(통제성, 반응성, 연결성)로 구분하여 기존 TAM 요인들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총 11개의 가설 중 8개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가설검증 요약

가설	가설내용	결과
H1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유용성 인지는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2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용이성 인지는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3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통제성 지각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3-1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통제성 지각은 유용성 인지를 향상 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3-2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통제성 지각은 용이성 인지를 향상 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4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반응성 지각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4-1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반응성 지각은 유용성 인지를 향상 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4-2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반응성 지각은 용이성 인지를 향상 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5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연결성 지각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5-1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연결성 지각은 유용성 인지를 향상 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5-2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자의 연결성 지각은 용이성 인지를 향상 시키므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먼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 TAM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 대한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가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이 자신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야 이용할 의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의 이용의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유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성 구성요인 중에서 연결성과 반응성의 지각이 유용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요인들을 통해 유용성 인지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으로는 연결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공동체를 위해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정보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이용자 간 정보공유를 포함한 반응성을 강화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유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응성 측면에서는 이용자 간의 정보공유를 정보제공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지각하는 반응과 대기 상황을 줄이도록 해야 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운영자 측면에서 적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제성은 지각된 유용성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순서, 시간 등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관계에서 통제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이미 웹 기반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경험이 풍부하여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과 같은 웹 기반 플랫폼을 어렵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64]. 즉, 20대 여성 이용자들은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과 같은 웹 기반 플랫폼의 사용방법을 파악하고, 배우며, 실제 이용 시에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여 일정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록 이용자의 통제성 지각이 낮더라도 이용에 어려움

이 없기 때문에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지각된 연결성의 경우에는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타인과 교감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느끼면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누적된 이용경험은 용이성 인지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Liaw 외(2007)[56]의 연구와 같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게시판과 상호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제공자들과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 중에서 반응성은 지각된 용이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지각된 반응성이 이용자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이용자들이 경험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반응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 해석된다. 즉, 현재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의 경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제공된 창작정보에 대한 재해석적인 이용태도 및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질의응답과 같은 운영자와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반응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더 중요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반응성은 유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정보기술의 수용 및 이용의도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매체의 특성을 적용하여 상호작용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용계층을 분석하기보다는 20대 예술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아트 아

카이브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따른다. 또한, 추후 연구과제로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예술 대학 창작활동을 위한 보조적인 이용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지, 창작자들을 위한 공유매체인지, 일반인의 예술 문화의 접근을 위한 매체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Wiley-Blackwell, p.54, 1992.
- [2] Terry Abraham, "Literature survey :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 Theory and practice," *The American Archivist*, Vol.54, No.1, pp.44-52, 1991.
- [3] Hal Foster, "An archival impulse," MIT Press, OCTOBER, Vol.110, pp.3-22, 2004.
- [4] 정혜린, 김익한,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20호, pp.151-212, 2009.
- [5] 서성일, "e-learning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e-learning 학술연구*, 제1권, 제1호, pp.79-104, 2002.
- [6] Y. K. Lee, "Effects of system trial on consumer beliefs in marketing software produc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Vol.10, No.2, pp.84-89, 2007.
- [7] L. F. Liao, "A flow theory perspective on learner motivation and behavior in distance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Vol.27, No.1, pp.45-62, 2006.
- [8] 원희수, 강윤정, 이원준, "웹 사이트의 보완적 활용과 상호작용성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pp.455-462, 2004.
- [9] 김유승,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pp.31-52, 2010.
- [10] H. H. Teo, L. B. Oh, C. Liu, and K. K. Wei,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interactivity on web user attitud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58, No.3, pp.281-305, 2003.
- [11] 이정란, *인터넷 상호작용성이 e-브랜드에 있어서 일체감, 관계품질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12] M. Lombard and Snyder-Duch J, "Interactive advertising and presence : A framework,"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Vol.1, No.2, 2001.
- [13] D. E. Sutton, *Remembrance of repasts : An anthropology of food and memory*, Oxford, UK: Berg, 2001.
- [14] Wagner Richard, W. Ashton Ellis(tr.), *The Art-Work of the future and other work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3.
- [15] Y. Liu and L. J. Shrum, "What is interactivity and is it always such a good th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person, and situation for the influence of interactivity on adverti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Advertising*, Vol.31, No.4, pp.53-64, 2002.
- [16] Tanjev Schultz,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Vol.22, No.2, pp.205-221, 2000.
- [17] G. Wu, *The role of perceived interactivity in interactive ad processing*,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0.
- [18] C. Heeter, *Implications of new interactivity technologies for conceptualizing communication*, in Jerry Salvaggio and Jennings Bryant(Eds), *Media use in the information age*, Lawrence

- Erlbaum Associates, pp.217-235, 1989.
- [19] G. G. Johnson, G. C. Bruner II, and A. Kumar, "Interactivity and its facets revisited theory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Advertising*, Vol.35, pp.35-51, 2006.
- [20] J. R. Coyle and E. Thorson, "The effects of progressive levels of interactivity and vividness in web marketing sites," *Journal of Advertising*, Vol.30, No.3, pp.65-77, 2001.
- [21] J. H. McMillan and S. Nash, "Teachers classroom assessment and grading decision mak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f Measurement in Education, 2000.
- [22] Y. Lee, K. Kozar, and K. Larse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Past, Present, and Futur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2, pp.752-780, 2003.
- [23] J. S. Lee, "Interactivity : A new approach," Paper read at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2000.
- [24] F. Williams, R. E. Rice, and E. M. Rogers, *Research methods and the new media*, New York : The Free Press, 1988.
- [25] R. R. Dholakia, M. Zhao, N. Dholakia, and D. Fortin, "Interactivity and revisits to websites : A theoretical framework," RITIM Working paper, 2000.
- [26] 이태민,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고객관계 구축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제19권, 제1호, pp.61-96, 2004.
- [27] 이용기, 이정란, 유동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e-브랜드의 상호작용성, 일체감, 관계품질과 충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경영정보학연구*, 제15권, 제4호, pp.1-26, 2005.
- [28] 탁진영, 박원달,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이 인터랙티브 TV광고의 효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6권, 제4호, pp.79-107, 2005.
- [29] 황장선, 김은혜, 조정식, "웹 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인지된 상호작용성, 인터넷 이용 동기 및 관여도," *한국광고홍보학회*, 제8권, 제1호, pp.159-186, 2006.
- [30] 구자철, 신병호, 서영호, 이상철,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e-learning 사이트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지*, 제26권, 제2호, pp.71-89, 2009.
- [31] M. Spalter, *Maintaining a customer focus in an interactive age?*, in Forrest E., Mizerski R.(Eds), *Interactive marketing : The future present*, NTC Publishing Group. Chicago : NTC Business Books the American Market in Association, pp.163-187, 1996.
- [32] J. Steuer, "Defining virtual reality :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2, pp.73-93, 1992.
- [33] W. R. Neuman, *The Future of the mass aud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34] R. Rice, *New media technology : Growth and integration*, in R. Rice and Associates(Eds.), *The new media : Communic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Beverly Hills : Sage, 1984.
- [35] L. Ha and E. L. James, "Interactivity reexamined : A baseline analysis of early business web site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42, No.4, pp.457-474, 1998.
- [36] Sheizaf Rafaeli and Fay Sudweeks, "Networked interactivity,"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2, No.4, 1997.
- [37] T. Lieb, "Inactivity on interactivity,"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Vol.3, No.3, 1998.
- [38] 권성호, 서윤경, 이승희, "WOO(Web based multi-user Object Oriented) 기반 학습공동체 설

- 계를 위한 구성요소 탐색,”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7권, 제4호, pp.1-20, 2001.
- [39] 전달영, 권주형, 안광진, “사이버대학의 e-learning 서비스 품질과 참여요인이 학생만족과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4호, pp.185-207, 2005.
- [40] F. D. Davis, R. P. Bagozzi, and P. R. Warshaw,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Vol.35, No.8, pp.982-1003, 1989.
- [41] I. Ajzen and M.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1980.
- [42] F. D. Davi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13, No.3, pp.319-340, 1989.
- [43] C. C. Lee, H. K. Cheng, and H. H. Cheng, “An empirical study of mobile commerce in insurance industry : Task-technology fit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cision Support Systems*, Vol.43, No.1, pp.95-110, 2007.
- [44] R. Agarwal and Prasad Jayesh,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ts of user perceptions in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Decision Support Systems*, Vol.22, No.1, pp.15-29, 1997.
- [45] G. C. Moore and L. Benbasat,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adop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Information System Research*, Vol.2, No.3, pp.192-222, 1991.
- [46] J. C. Roca, C. M. Chiu, and F. J. Martinez, “Understanding e-learning continuance intention : An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64, No.8, pp.683-696, 2006.
- [47] V. Venkatesh, F. D. Davis, and M. G. Morris, “Dead or alive? The development, trajectory and future of technology adoption research,”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8, No.4, pp.267-286, 2007.
- [48] V. Venkatesh and F.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46, No.2, pp.186-204, 2000.
- [49] Ortega Egea and Roman Gonzalez, “Explaining physicians’ acceptance of EHCR systems : An extension of TAM with trust and risk facto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7, No.1, pp.319-332, 2011.
- [50] 나은영,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제15권, pp.3-33, 1994
- [51] A. Venkatesh, E. Kruse, and C. F. Shih, “The networked home : An analysis of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Cognition, Technology, and Work*, Vol.5, No.1, pp.23-32, 2003.
- [52] V. Venkatesh and H. Bal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 and a research agenda on interventions,” *Decision Sciences*, Vol.39, No.2, pp.273-315, 2008.
- [53] B. H. Wixom and P. A. Todd, “A theoretical integration of user satisfaction and technology acceptanc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6, No.1, pp.85-102, 2005.
- [54] V. L. Saga and R. W. Zmud,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IT acceptance, routinization, and infusion,” *IFIP*, Vol.A, No.45, pp.67-86, 1994.
- [55] K. Mathieson, “Predicting user intention : Compar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 No.3,

pp.173-191, 1991.

[56] S. S. Liaw, H. M. Huang, and G. D. Chen, "Surveying instructor and learner attitudes toward e-learning," *Computers and Education*, Vol.49, pp.1066-1080, 2007.

[57] H. H. Lee, A. M. Fiore, and J. H. Kim, "The role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explaining effects of image interactivity technology on consumer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and Distribution Management*, Vol.34, No.9, pp.621-644, 2006.

[58] D. L. Hoffman and T. P. Novak,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 mediated environments : Conceptual foundations," *Journal of Marketing*, Vol.60, No.3, pp.50-68, 1996.

[59] M. Koufaris, "Apply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flow theory to online consumer behavior,"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3, No.2, pp.205-223, 2002.

[60] A.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 L. Berry, "SERVQUAL :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Vol.64, No.1, pp.12-40, 1988.

[61] 이웅규, 이종기, "자기효능감과 서비스 품질이 e-학습 시스템의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제12권, 제2호, pp.41-56, 2003.

[62] 박주성, 김중호, 신용섭, "대학교육 서비스 품질 요인이 학생만족, 재입학 의도 및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저널*, 제4권, 제4호, pp.52-74, 2002.

[63] Y. S. Wang, Y. M. Wang, H. H. Lin, and Tzung-I Tang, "Determinants of user acceptance of internet banking :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Vol.14, No.5, pp.501-519, 2003.

[64] J. W. Moon and Y. G. Kim, "Extending the

TAM for a World-Wide-Web context,"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38, No.4, pp.217-230, 2001.

[65] Carrie Heeter, "Interactivity in the context of designed experiences,"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Vol.1, No.1, pp.3-14, 2000.

저 자 소 개

김 혜 정(Hye-Ju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예술경영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Art Management, 콘텐츠디자인, 문화 콘텐츠 등

박 종 우(Jong-Woo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조지워싱턴 대학교 (경영공학 석사)
- 2007년 2월 : 조지워싱턴 대학교 (경영공학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OM, SCM, SOM, TQM 등